



2009년 시립극단 공연연황 총괄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31건 / 62회			9,765명
2009. 3. 18(수) 에림천	"우동 한 그릇"	원작 / 구리 료헤이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윤경 서국현 장성숙 최지연 김태훈 * 스태프 * 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 송관우 분장·의상 / 손진숙 녹음 / 이창영 기타연주 / 이미경 외 1인 기획 / 이종열 이숙희 이문형	<p>구리 료헤이의 작품 「우동 한 그릇」은 동화 같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의 소설로서 우리나라 정서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훌륭한 이야기이다.</p> <p>진짜 실화가 아닐까하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이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른 동화이다.</p> <p>요즘같이 사람들의 정이 그럽고, 대화의 단절로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표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p> <p><줄거리></p> <p>〈복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집은 헤마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손님들로 붐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그곳에 남루한 차림의 세모자가 들어와서 단 한 그릇의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간다. 그 후에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세모자는 〈복해정〉을 찾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p> <p>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 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올 세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복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두고 이러한 사연은 단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겨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 집에 나타난다. 두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똘똘해진 모습으로...</p> <p>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몇몇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배풀어 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복해정〉의 선달그들은 훈훈함으로 젖어간다.</p>	120명
2009. 3. 19(목) 은광학교		13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3. 27 - 4. 5 소공연장 (11회)	제51회 정기공연 "담집에 갔었다"	작 / 장은경 각색·연출 / 위성신 * 출연진 * 김용란 정남철 이병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이수정 황혜원 (객원) 하성민 위해서 * 스태프 * 조연출 / 하성민 무대디자인 / 송관우 분장·의상 / 손진숙 기획 / 이종열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	우연히 들른 시장, 그곳에서 리얼한 표정 들을 발견하다... 연극 <담집에 갔었다>는 여전히 미궁 으로 남아있는 담집 제천택의 가정사로 부터 출발하여 주변 인물들의 관심과 오해를 임상적이고 사실적으로 엮은 극이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겐 단지 출 퇴근길의 통로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자 성격을 굳히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오리바다에 소소 하고 자연스럽게 얽히고설키면서 이워 내는 시장의 풍경은 우리 동네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우리 동네 시장의 냄새로부터 시작된다. 이 극은 그렇게, 커다란 사건 이나 인위적인 장치들 배제한 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 리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 이 연극은 매우 부산스럽다. 관객이 차 분히 한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보다, 무대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여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을 갖게 한다. 곧 익숙 해질 관객은 이런 부산스러움이 인성으로 우리 사는 모습인걸 알게 된다. <줄거리> 시장에서 담집을 하고 있는 제천택은 어느 날 남편이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거기다 제천택을 살인자로 보는 주위의 집요한 시선이 제천택의 아들 종구의 가슴과 더불어 제천택을 힘들게 한 다. 미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담 당행사의 뇌물요구는 점점 심해지고... 그런 제천택의 사정과는 달리 시장 사람 들은 다들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어하며 주마담이 타주는 한 잔의 커피에 만족하기도 하는 등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 어느 날 제천 택에게 한통의 혈액전화가 걸려오고 혈액 범은 사고현장의 증거대이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 거듭되는 혈액에 제천택은 할의 불 하고 돈을 건네주게 되고 공포롭게도 그날 교통사고로 합의금 때문에 고민하던 야채가게 박순미의 칠없는 남편인 오상길이 시장사람들에게 한턱내며 즐겨워하는데...	1,296명



일자/장소	공 언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9. 3. 31(화) 인천실버타운			<p>구리 료헤이의 작품 「우동 한 그릇」은 동화 같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의 소설로서 우리나라 정서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훌륭한 이야기이다.</p> <p>진짜 실화가 아닐까하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이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분동화이다.</p> <p>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럽고, 대화의 단절로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마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p>	100명
2009. 4. 3(금) 부평문화사랑방		<p>원작 / 구리 료헤이 연출 / 손경희</p> <p>• 출연진 •</p> <p>조윤경 서국현 강성숙 최지연 김태훈</p>	<p><줄거리></p> <p><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집은 해마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손님들로 붐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그곳에 남무한 처럼의 세모자가 들어와서 단 한 그릇의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간다. 그 후에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세모자는 <북해정>을 찾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p>	250명
2009. 4. 9(목) 인천구치소	"우동 한 그릇"	<p>• 스태프 •</p> <p>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 송관우 분장·의상 / 손진숙 녹음 / 이창영 기타연주 / 이미경 의 1인 기획 / 이종열 이옥희 이돈형</p>	<p>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 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올 세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북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놓고 이러한 사연은 단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겨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 집에 나타난다. 무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뿔뿔해진 모습으로...</p>	300명
2009. 4. 14(화) 인혜학교			<p>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몇몇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배풀어 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북해정>의 선담그들은 훈훈함으로 벗어간다.</p>	150명
2009. 4. 16(목) 남동정에인복지관				12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4. 18 ~ 19 소공연장 (2회)	순천시립극단 교류공연 "벚꽃동산"	작 / 안본제후 연출 / 김민호 * 출연진 * 양숙광 정다음 정다운 김양훈 서수현 노광훈 김효승 이정미 박광재 조선영 최성귀 김홍래 강미을 황종권 양대연 * 스태프 * 무대감독/ 김종호 의상디자인 / 백순옥 조명디자인 / 윤돈선 조명감독 / 이윤주 음향디자인 / 김도현 분장디자인 / 이지원 분장 / 유천희 안무 / 장경인 기획 / 이종열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 양숙광 (순천시립)	제목과 순천시립극단의 두 번째 조우 제목은 자신의 작품을 코미디라고 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삶의 부조리, 모순, 복잡함... 어찌할 수 없는 구차함들... 이 모든 것 들을 치장하지 않고 날것으 로 보여주는 제목의 진솔함은 그자신의 설 명처럼 그들에게겐 진지하고 아픈 사람들이 보는 이에게는 한없는 삶의 코미디로 보여 진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작품 속에서 제목과 얼마만큼 만나고 있을까? <줄거리> 백파사건에도 나와 있을 만큼 광활하고 아름다운 벚꽃동산의 이지주 라넵스까야는 5년간의 파리생활을 청산하고 백아가 눈부 신 5월에 벚꽃동산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농노해방과 지주의 몰락으로 벚 꽃동산은 빛디미에 올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여있다. 상냥하고 너그러운 라넵스까야의 인품에 과거 농노시절에 위로를 받았던 신흥재벌 로타힌은 빛디미에 오른 라넵스까야를 위 해 벚꽃동산을 별장지로 임대할 것을 제안 한다. 그러나 라넵스까야와 그녀의 오빠 가에 프는 과거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벚꽃동 산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 로타힌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벚꽃동산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138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9. 4. 20 ~ 21 장수초등학교 (2회)			<p>구리 료헤이의 작품 「우동 한 그릇」은 동화 같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의 소설로서 우리나라 정서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훌륭한 이야기이다.</p> <p>진짜 실화가 아닌까하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이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권동화이다.</p> <p>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림고, 대화의 단절로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표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p>	700명
2009. 4. 26(일) 학익사회복지센터		<p>원작 / 구리 료헤이 연출 / 손경희</p> <p>* 출연진 *</p> <p>조윤경 서국현 강성숙 최지연 김태훈</p>	<p><줄거리></p> <p>〈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집은 해마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손님들로 붐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그곳에 남부한 차림의 세모자가 들어와서 단 한 그릇의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간다. 그 후에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세모자는 〈북해정〉을 찾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p> <p>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 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올 세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북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두고 이리한 사연은 단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겨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 집에 나타난다. 두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말쑥해진 모습으로...</p>	250명
2009. 4. 28(화) 연일학교	"우동 한 그릇"	<p>* 스태프 *</p> <p>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 송권우 분장·의상 / 손진숙 녹음 / 이장영 기타연주 / 이미경 외 1인 기획 / 이종열 이옥희 이돈형</p>	<p>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 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올 세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북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두고 이리한 사연은 단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겨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 집에 나타난다. 두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말쑥해진 모습으로...</p>	120명
2009. 4. 29(수) 예림학교			<p>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몇몇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북해정〉의 선달그림은 혼돈함으로 찾아간다.</p>	100명
2009. 4. 30(목) 해광학교			<p>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몇몇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북해정〉의 선달그림은 혼돈함으로 찾아간다.</p>	11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5. 2(토) 축제박람회		원작 / 구리 료헤이 연출 / 손경희	구리 료헤이의 작품 「우동 한 그릇」은 동화 같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의 소설로서 우리나라 정서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훌륭한 이야기이다. 진짜 실화가 아닐까하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이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문동화이다. 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럽고, 대화의 단절로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표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120명
2009. 5. 8(금) 소망의 집	"우동 한 그릇"	* 출연진 * 조유경 서국현 강성숙 최지연 김태훈 * 스템 * 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 송관우 분장·의상 / 손진숙 녹음 / 이창영 기타연주 / 이미경 의 1인 기획 / 이종열 이옥희 이돈형	<줄거리>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집은 해마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손님들로 붐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그곳에 남무한 차림의 세모자가 들어와서 단 한 그릇의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간다. 그 후에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세모자는 <북해정>을 찾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 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온 세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북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뒀고 이러한 사연은 단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지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 집에 나타난다. 두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말쑥해진 모습으로... 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몇몇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배풀어 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북해정>의 선달그들은 혼혼함으로 찾아간다.	120명
2009. 5. 8(금) 장도초등학교				350명
2009. 5. 23(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천부지들"	* 출연진 * 최진영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천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스카미트와 폴 존스가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망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	400명



일자/장소	공 언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9. 7. 28 ~ 29 환호해맞이공연 (2회)	포항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사랑과 광증"	<p>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플래처 번역 / 신정옥 번안·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윤경 서국현 이필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구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p> <p>(객원) 이강덕 최재성 이용석</p> <p>* 스태프 *</p> <p>작곡·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안무 / 홍경희 조안무 / 유봉주 무대디자인 / 송관우 의상디자인 / 정경희 분장디자인 / 손진숙 사진 / 유재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이종열 이윤희 유은미 이돈형</p>	<p>모차르트 음악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한여름 밤을 매료시킨다!</p> <p>(사랑과 광증)은 연극과 음악과 춤이 가미된 퓨전 형식의 뮤지컬이다. 사랑을 위해 우정까지도 버려야했던 두 젊은이들 의 사랑과 짝사랑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광기가, 흥미롭고 유쾌하며 환상적으로 꾸 며진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시대와 상황 과 형식을 뛰어 넘어 무더운 한 여름 밤에 열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관객하기에 적합 한 이 작품은 제2의 (한 여름 밤의 꿈)이 라 할 만큼 사랑과 열정의 로맨스가 뛰어 난 작품이다.</p> <p><줄거리></p> <p>무대는 어느 시대의 어떤 곳. 결혼식을 올리려는 왕과 여왕 앞으로 세 여인이 나 타나 진정타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 습해 달라고 청원한다. 마음의 통증을 받 은 왕비와 처제의 설득에, 왕은 적국의 정벌에 나선다. 한편 적국에서는 왕자 나 모와 아사달에게 고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만 포로가 되어 밤에 유 괴된다. 감옥 창문을 지나가는 아델리에 게 두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 고,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은 간열이 생긴 다. 그 후 아사달은 용서를 받아, 일평생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음을 조건으로 석 방된다. 그러나 아델리에게 반한 아사달 은 변장을 하여 신분을 속이고 부술대회 에 나가 결국 우승을 한다. 그래서 그 보 상으로 아델리의 경호원이 된다.</p> <p>한편 나모는 그를 사랑하는 교도관의 딸 필리아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되고, 숲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모를 빼내 는 중죄를 진 필리아는 벗지 못할 사랑에 미쳐버린다. 몸을 숨긴 숲에서 아사달과 우연히 재회하는 나모. 들은 절두 중에 사냥을 하고 있던 왕에게 발각되고, 격노 한 왕은 승자는 아델리와 결혼을 하고 패 자는 처형을 하게 됨을 조건으로 결투를 명한다. 나모와 아사달의 결투에서 승리 한 아사달은 나모가 단두대에 오른 순간 말에 떨어지게 되고, 유언으로 친구인 나 모에게 아델리와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둔다.</p>	75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7. 31 ~ 8. 9 아외공연장 (9회)	제52회 정기공연 "사랑과 광증"	<p>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플래처 번역 / 신정옥 빈안·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용경 서국현 이범수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장희 황해린</p> <p>(객원) 이강덕 최제성 이용석</p> <p>* 스태프 *</p> <p>작곡·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안무 / 홍경희 조안무 / 유봉주 무대디자인 / 송원우 의상디자인 / 정경희 분장디자인 / 손진숙 사진 / 유제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이종철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모차르트 음악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한여름 밤을 데려오신다!</p> <p>(사랑과 광증)은 연극과 음악과 춤이 가미된 퓨전 형식의 뮤지컬이다. 사랑을 위해 우정까지도 버려야했던 두 젊은이들의 사랑과 짝사랑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광기와, 흥미롭고 유쾌하며 환상적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시대와 상황과 형식을 뛰어 넘어 무더운 한 여름 밤에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관극하기에 적합한 이 작품은 제2의 <한 여름 밤의 꿈>이라 할 만큼 사랑과 열정의 로렌스가 뛰어난 작품이다.</p> <p><줄거리></p> <p>무대는 어느 시대의 어떤 곳. 결혼식을 올리려는 왕과 여왕 앞으로 세 여인이 나타나 전장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청원한다. 마음의 동요를 받은 왕비와 처제의 설득에, 왕은 적국의 정변에 나선다. 한편 적국에서는 왕자 나모와 아사달에게 고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만 포로가 되어 밤에 유죄된다. 감옥 창문을 지나가는 아밀리아에게 두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은 끈열이 생긴다. 그 후 아사달은 용서를 받아, 일평생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음을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러나 아밀리아에게 반한 아사달은 변장을 하여 신분을 속이고 무술대회에 나가 결국 우승을 한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아밀리아의 경호원이 된다.</p> <p>한편 나모는 그를 사랑하는 교도관의 딸 필너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되고, 숲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모를 때내는 중죄를 진 필너는 맺지 못할 사랑을 미쳐버린다. 몸을 숨긴 숲에서 아사달과 우연히 재회하는 나모. 둘은 절두 중에 사냥을 하고 있던 왕에게 발각되고, 격노한 왕은 송지는 아밀리아와 결혼을 하고 페자는 처형을 하게 됨을 조건으로 절두를 명한다. 나모와 아사달의 절두에서 송리한 아사달은 나모가 단두대에 오른 순간 말에 떨어지게 되고, 유언으로 친구인 나모에게 아밀리아와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둔다.</p>	1,617명



일자/장소	공 언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권람인원
2009. 10. 16 ~ 25 소공연장 (11회)	제53회 정기공연 "사랑과 죽음의 유희"	작 / 로맹롤랑 번역 / 유호식 연출 / 이종훈 * 출연진 *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경화 강주희 최진영 정순미 김문경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 스태프 * 작곡·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안무 / 구경숙 무대디자인 / 최상철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최형오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디자인 / 임은진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든형	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영혼과의 만남!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인간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 주며, 그 세계관이 인간을 어떻게 변모시 켜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숭고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삶에 대한 헛된 예감으로 변하기도 하고, 혁명의 이상을 추구하던 사람이 국 가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현재의 욕망을 포기하려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혁 명은 숨겨진 이기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잃어버린 가치들과 사랑을 재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줄거리> 공포정치가 한창이던 1793년 3월 국민 공회 의원이자 과학자인 제롬 드 쿠르부 아지에 집에 여러 명이 모여 불타미를 하고 있던 중 숙청당해 죽은 줄 알았던 지롱드 당 의원 끌로드 발레가 찾아온다. 발레는 제롬의 아내인 소피와 서로 사랑하는 사 이이며 소피는 남편에 대한 충실성과 사 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제롬은 당등을 숙청하려는 로베스피에르의 정박 에 반대하면서 국민공회에서 뛰어나와 혁명과 인간에 대해 절망한 상태로 귀가 한다. 그리고 발레와 소피의 사랑을 눈치 채고 더욱 절망한다. 발레가 제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드니 바이요가 공 안위원회에 발레의 존재를 고발함으로써 제롬을 둘러싼 비극적 상황은 더욱 악화 된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배 신당한 제롬은 보안위원회가 가택수색을 하러오자 아내와 발레를 결합시키기 위 해 자신이 저술한 반혁명 pamphlet을 노출 시킴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 카 르노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 제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주는데, 제롬은 그 여권을 발레와 아내에 게 주고 도피할 것을 권한다. 발레는 도 피하고 소피는 자신을 희생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혁명의 정신을 구하기 위해 담담하게 체포되기를 기다린다.	934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12. 9(목) 사립연영구극국 노인센터			<p>권선징악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전동화인 「홍부와 늑부」로 인천시립극단 특유의 재구성성을 통하여 만든 작품이다. 마음씨 착한 홍부와 못된 늑부 그리고 재비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요즘 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림고,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흥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p> <p>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손경희 연출의 호흡으로 재구성 된 이 작품은 탄탄한 연기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재구성 했으며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한다.</p>	100명
2009. 12. 10(금) 연수구청소년수련원		연출 / 손경희		50명
2009. 12. 10(금) 대안학교 청	"홍이야 늑이야"	<p>* 출연진 *</p> <p>조윤경 김세경 송정화 강성숙 정순미 서창희</p> <p>* 스태프 *</p> <p>기획 / 김화산 이육희 이은형</p>	<p><줄거리></p> <p>옛날 옛적에 홍부와 늑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이좋게 살라고 지어준 집에서 형인 늑부가 동생 홍부를 쫓아내 버립니다. 착한 홍부는 갑자기 쫓겨나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홍부네 가족을 몰아낸 조용한 늑부집에 재비 한 쌍이 날아들어 동지를 틀자 늑부는 재비집을 부숩니다. 재비 가족은 허물하지만 딱 써 좋은 홍부네 집에서 동지를 틀고 일을 맡습니다. 한밤중에 구멍이가 알을 노리고 덩비자 재비 부부는 그것을 막으려다 아파 제비는 잠이 멎히고 얼마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위기 상황!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홍부가 구멍이를 물리칩니다. 홍부는 얼마 재비를 치료하고 앞에서 깨어난 아기 재비를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건강해진 얼마 제비는 아기 재비와 함께 재비나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저간의 사정을 보고합니다. 감동한 임금님이 상으로 박씨를 내리자 재비 가족이 홍부에게 전달합니다. 박씨는 심장자자 두덕두덕 자라서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먹는 사람은 모두 사랑에 따지게 하는 사랑의 맥> 이 나옵니다. 착한 홍부는 이웃은 물론 형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평생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늑부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p>	60명
2009. 12. 13(월) 학익사회복지센터				500명
2009. 12. 14(화) 중구노인복지관				16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9. 12. 15(수) 서구노인복지관	"홍이야 놀이야"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윤경 김세경 송정화 강성숙 정순미 서창희 * 스태프 *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준형	권선정악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전동화인 「홍부와 놀부」로 인천시립극단 특유의 재구성성을 통하여 만든 작품이다. 마음씨 착한 홍부와 못된 놀부 그리고 제비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럽고,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흥편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180명
2009. 12. 15(수) 인천아동복지 종합센터			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손경희 연출의 호흡으로 재구성 된 이 작품은 단단한 인기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재구성 했으며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150명
2009. 12. 18(토) 남구 노인문화센터			<즐거리> 옛날 옛적에 홍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이좋게 살라고 지어준 집에서 형인 놀부가 동생 홍부를 아내 버립니다. 착한 홍부는 갑자기 쫓겨나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홍부네 가족을 몰아낸 조용한 놀부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등지를 뜯자 놀부는 제비집을 부숴버립니다. 제비 가족은 허름하지만 맘씨 좋은 홍부네 집에서 등지를 뜯고 알을 낳습니다. 한밤중에 구렁이가 알을 노리고 덫비자 제비 부부는 그것을 막으려다 아파 제비는 잡아먹히고 엄마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위기 상황!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홍부가 구렁이를 물리칩니다. 홍부는 엄마 제비를 치료하고 알에서 깨어난 아기 제비를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건강해진 엄마 제비는 아기 제비와 함께 제비 나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자간의 사경을 보고합니다. 감동한 임금님이 상으로 박씨를 내리자 제비 가족이 홍부에게 전달합니다. 박씨는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먹는 사람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랑의 떡>이 나옵니다. 착한 홍부는 이웃은 물론 형님에게도 나누어 주고 평생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80명
2009. 12. 19(일) 주원마을 아동복지 종합센터			기회 / 김화산 이옥희 이준형	120명
2009. 12. 20(월) 향진원			90명	